

# 구례군, 20일까지 구례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 적발시 과태료부과·가맹점취소 등 행정처분 통합관리시스템 통해 모니터링 및 현장방문

구례군은 구례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류형 구례사랑상품권이 32억 원 지급됐으며 연말까지 10% 할인 판매를 시행함에 따라 구례사랑상

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른바 '상품권 강'을 비롯한 부정 유통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판매점 등) 여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 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액, 사용처를 비롯한 사용 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 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해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건식 기자

### 여수, 온라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막 백신 2차 접종자, 대면 전시행사 관람 가능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15일부터 3일간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온라인축제로 찾아온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이하 재단)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그린패스(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에 한해 박람회장에 준비된 전시관 관람이 가능하다. 재단에서는 유튜브 채널(남도음식문화큰잔치TV)과 SNS, 홈페이지 등 축제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박람회장 전시 행사장 내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대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남도음식요리교실 △남도추수한마당 △명인요리레시피 △남도푸드스타일링 등이 있으며, 여수의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남도음식 버스커 △남도음식 뮤직비디오 △랜선여행 '1박2일' 등도 시민과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도의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한 릴레이 축하메시지 △남도를 잇다는 각 시·군의 캐릭터들과 함께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14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쇼플레이브를 통해 여수 10미인 갖김치와 간장계장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여수10미 라이브커머스도 소상공인을 위한 △동네가게 함께가게 등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마련된 △남도음식 영상관 △22개 시·군 전시관 및 명인관 △여수관 등은 그린패스를 제시할 경우 관람할 수 있다. /이문석 기자

### 순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순천시(시장 허석)는 10월 한달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2021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참여해 재난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시설물 보수·보강 및 제도 개선을 독려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대진단은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산사태 발생지역, 코로나19 관련 취약시설, 노후공동주택 등 핵심·위험시설 위주로 64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대상시설물 전체를 순천시 안전총괄과와 시설물관리부서(14개부서), 안전관리자문단(18명), 유관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집중점검한다. 또한, 민관합동 점검대상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도 시민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내 집·내 점포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해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승택 기자



곡성군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오지마을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칼같이, 이동빨래방, 전기 안전 점검 및 수리, 한방 진료, 양방 진료, 여성 취업상담, 안경 수리 및 지원, 통합

## 곡성군,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실시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최근 오산면 작전 마을회관에서 20차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오지마을로 직접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칼같이, 이동빨래방, 전기 안전 점검 및 수리, 한방 진료, 양방 진료, 여성 취업상담, 안경 수리 및 지원, 통합

사례관리 상담 등을 제공한다. 추수철을 맞아 이번 희망복지 기동서비스에서는 경운기, 기계톱, 분무기, 관리기 등 농기계에 대한 수리 요청이 많았다. 마을 주변에 농기계 수리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은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통해 편하게 농기계 수리하게 되면서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아울러 서비스단은 농기계 자가

정비방법, 농기계 사용 및 관리법 등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농기계 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았다. 한편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은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심선섭 기자

## 광양, 린츠시와 문화예술 교류 화상회의 유럽문화 수도 린츠시와 문화예술 교류·협력

광양시는 최근 광양예술창고에서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문화예술 교류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광양시와 린츠시는 광양제철소와 알피네 제철소의 인연으로 1991년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1996~2001년 양 시 미술교류전(4회)을 가지는 등 문화예술, 국제행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계획 소개 △린츠시 유럽문화수도 경험 공유 △문화예술 협력 실무협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박시훈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장 등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기반으로 문화교역 도시 광양으로 가기 위한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린츠시는 칠강도시에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으로 지난 2009년 유럽문화수도, 2014년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되며 아르스 일로트로니카 축제 등 세계인이 찾는 문화예술도시의 현황을 소개했다. 탁영희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만나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는 린츠시의 선진 사례를 배우는 좋은 기회였으며, 향후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택 기자